

“여자가 무슨!”

내 아내는 휴대전화 AS센터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해 15년 넘게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을 해왔다. 오랜 시간 일해 온 만큼 직업에 대한 만족감도 큰데다가 휴대전화를 섬세하고 빠르게 수리해 낸다는 자부심과 자신감도 상당하다. 그런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일이 하나 있다. AS센터에서 만나는 고객들마다 가지고 있는 여성엔지니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다.

얼마 전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근무 중에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전날 휴대전화를 수리하고 갔던 한 노인분이 다음날 다시 AS센터에 방문해 다짜고짜 아내를 향해 화부터 냈다는 것이다.

“어제 내가 수리를 받고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작동이 안 되더라고! 아휴, 내가 애초부터 여자한테 고치는 게 아니었는데 …. 이런 건 남자가 고쳐야 제대로 고치지. 쫓쫓.”

편견 가득한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아내는 차분히 휴대전화를 살폈다. 작동이 되지 않았던 건 아내가 수리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노인분이 휴대전화를 잘못 눌러서였다. 바로 상황을 파악한 아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상대는 자신의 버튼 조작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어제 그쪽이 잘못 고쳐놓고 이제 와서 내 잘못으로 모는 거요?” 라고 쏘아붙이곤 센터를 빠져 나갔다고 한다.

사실 아내가 여성 엔지니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어린 시선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언젠가 한번은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온 중년 남성이 엔지니어인 아내를 보고 “아니, 여자가 무슨 기계를 고친다고 나한테 이 사람을 배정해줘요? 다른 남자 직원은 없어요? 당장 남자로 바꿔줘요!” 라며 소리를 쳐 난처했던 적도 있었다.

아내는 분명 엔지니어로서 주어진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수리를 잘 해도 “여자 분이 실력이 좋네요!” 라거나, 혹은 “여자가 해봤자 뭘 하겠냐” 는 등의 사족이 붙어 다니는 현실에 아내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얼굴 가득 먹구름이 낀 아내를 보니 나 역시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가만 아내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과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언젠가 자동차 수리를 맡기기 위해 카센터에 갔을 때였다. 수리 접수를 하고 고객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여성 수리기사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당연히 자동차 수리는 남자가 맡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었기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기계와 관련된 자동차정비 업무 특성상 여자가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실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차마 수리기사를 바꿔달라고 하긴 그래서 여성 기사에게 그대로 일감을 맡겼지만 좀처럼 안심이 되지 않았다. 내 생각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전까지 남자 수리기사가 수리를 할 때는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고객대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 차 주변을 배회하면서 어떻게 수리하는지 지켜봤던 것이다.

내 우려와는 달리 여성 수리기사가 차량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모습을 보고 신뢰가 생겼다. 또한 수리 과정에 대해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연비 운전을 하는데 있어 좋지 않은 내 운전습관들까지 교정해주는 것을 보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

던 것이 부끄럽고 미안해졌다.

그리고 보면 나는 택시를 탔을 때도 여성 기사분이면 나도 모르게 ‘여자 분이 운전해서 그런지 승차감이 별로네!’ 라고 생각했었고, 건설현장을 지날 때 여성 굴삭기 기사를 볼 때면 “여자가 저런 일을 잘 할 수 있나?” 라며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었다.

내가 무심코 해왔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니, 아내나 다른 여성들이 남초집단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차별과 편견에 나도 한몫을 거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의 차별 섞인 고정관념이 여성 직업인들의 사기를 꺾고, 나아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기 때문이다.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 살림이나 배우다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라는 식의 편견은 사라졌지만, 성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식의 편견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 특히 경찰, 소방관, 건설현장 기술직 등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포진해있던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전문성을 의심받고 선입견 가득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복을 입었든, 공구가방을 들었든, 기름때 묻은 정비사 옷을 입었든, 운전대를 잡았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성들이 잘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낸 편견에 불과할 뿐이다. 남성의 일, 여성일 일을 구분하는 것은 신체 및 능력의 차이라기 보다는 젠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일 때가 많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성별에 의한 편견이 누군가의 꿈을 가로막고 좌절시키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따지지 않고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아내의 얼굴에서 완전히 시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